

중앙교회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63장 다같이**

-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 길 환하게 보이도다
-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다니엘 4:10-17(표준새번역) 인도자**

- 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 1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 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 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낫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 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설 교 “ 하늘에 닿은 나무 ” 인도자
 첨부한 그림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그림 설명은 설교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단 그림 이미지의 외부 배포는 안됩니다. 가정에서만 사용해주세요

기 도 **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아빠와 엄마가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 주세요.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닿은 나무”

(다니엘 4:10-17)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자기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교만이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대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정복하고 건설했다. 모든 위대함이 자신의 업적과 능력과 소유와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혹독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조서 형식으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써 보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2절).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궁에서 편히 거할 때 발생했다. 한 꿈을 꾸고 그는 번민했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다. 오직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알려진 다니엘만이 해석했다. 왕이 꾸는 꿈은 땅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견고하게 자라서 하늘에 닿아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풍성하여 만민의 먹거리가 되고, 새와 들짐승도 거기서 유익을 얻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권세와 영광과 풍성함에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 나무는 하나님 없이 복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는 갈고리가 있다. 꿈의 후반부에 갑자기 하늘의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등장한다. 그는 하늘의 명령을 따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짐승들과 함께 제 몫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태가 일곱 때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꿈은 미래로의 시간 여행에 해당한다. 지금처럼 살기를 고집할 경우에 당할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다. 물론 달한 운명을 말하려 함이 아니라 열린 미래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변화를 통해 미래의 파국을 바꾸라는 것이다. 꿈을 정확히 해석한 다니엘은 왕에게 조언을 주었다. 공의를 행하여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고 한 것이다. ▶왕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다. 12개월 뒤, 왕궁 옥상을 거닐던 왕은 바벨론을 보면서 자기 도취와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 무엇인가를 이룬 자들은 생각해야 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내 능력 때문인가?’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바벨론의 왕위가 느부갓네살에게서 떠났다는 선언과 함께 꿈에 나온 모든 내용이 왕에게 응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서 총명이 떠나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지내야 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일곱 해가 다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총명이 그에게 돌아왔고, 위엄과 광명이 그에게로 돌아옴으로써, 그는 다시 나라에서 세움을 받고 그의 신하들도 그에게 다시 모여들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절대자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는 조서를 반포하여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분을 찬양하게 된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증언은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이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수 있다. 둘째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성공이 실력이나 성실함이나 도덕적 탁월함이나 신앙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림 설명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벨드사살)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현재의 복과 미래에 닥칠 일들을 알려 주십니다. 미래를 알려주심으로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벨드사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왕궁의 옥상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를 보고 교만하고,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별을 주셔서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본 이미지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giny777&logNo=22012978540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에서 발췌했습니다.



